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
배포일자		2023년 4월 12일(수) 총 3매		
담당부서	관광마이스과	담당자	• 관광마케팅팀장 박은희 ☎440-4001 • 담당자 오진미 ☎440-4003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(14시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필리핀 특수목적 단체관광객 360여명 인천 방문				
- 지난 2월 현지 세일즈 성과, 올해 430여명 단체관광객 추가 방문 예정 -				
- 스마트도시, 개항장거리 송도 센트럴파크 등 둘러보고, 스마트도시 경험 -				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와 인천관광공사(사장 백현)는 4월 중 필리핀 선출직 공무원 등 360여명이 두 차례로 나누어 인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.

이는 지난 2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세일즈 활동을 펼친 성과로, 바탕가스주와 불라칸주 두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은 인천의 선진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.

먼저 첫 번째 방문단인 멜빈 비달(Melvin Vidal) 필리핀지방의원협의회 바탕가스주 의장을 대표로한 바탕가스주 선출직 공무원단 80여명은 4월 11일 인천을 방문했다.

이들은 공항에서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

한 센트럴파크의 수상택시를 탑승하고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G타워 홍보관을 둘러보며 최첨단 스마트도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. 또한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방문단을 대상으로 개최된 인천관광 설명회에서 해외 마케팅 및 마이스(MICE) 유치 사례, 스마트 관광 등 관광산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방문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특히 이번 방문단은 인천시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정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환담을 나눴다.

이어 오는 18일에는 불라칸주의 선출직 공무원 등 280여명이 인천을 찾을 예정인데, 근대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개항장거리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의 운영에 대해 시찰할 계획이다.

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이번 단체관광객 유치는 적극적인 현지 세일즈를 펼친 성공적인 성과”라며, “필리핀 뿐만 아니라 최근 K-콘텐츠 수요가 꾸준히 상승 중인 태국,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위해 5월 현지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를 개최해 방인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바탕가스주 42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올해 순차적으로 추가 방인할 계획이다.

<사진첨부> 인천공항에서 열린 환영행사

